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
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.

2022. 9.
Vol.69

APi **Blue**note

블루노트 통계 **Statistics**



청소년 정치참여 실태

모상현 선임연구위원
최용환 연구위원

요약¹⁾

- 조사목적** ▶ 전국의 중·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치의식, 사회·정치적 현안 및 이슈에 대한 관심, 정치참여 경험여부, 선거관심 및 공공기관 신뢰도,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행태, 정치참여 저해 및 활성화 요인 등의 영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함.
- 조사대상** ▶ 전국 17개 시도의 중1~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(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 4단계 진입으로 인해 전체 학교가 원격등교로 전환된 상황에서)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애초 목표 표본 수인 3,000명의 93.9%에 해당되는 2,816명(교급: 중학생 1,400명, 고등학생 1,416명, 성별: 남자 1,464명, 여자 1,352명)을 최종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.
- 조사방법** ▶ 면접원의 입회 하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
- 조사기간** ▶ 2021년 5월~8월

1)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과제인 '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' 연구를 발췌·요약한 것임.

1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

■ 전반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

- 전반적인 정치현안에 대한 관심이 있는 비율은 30.8%로, 관심이 없다(40.1%)보다 낮게 나타났으며, 남학생(33.1%)이 여학생(28.4%)보다, 고등학생(33.3%)이 중학생(28.3%)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 됨.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(33.0%) 낮을 경우(30.1%) 중간(27.8%) 보다 높은 비율로, 부모학력(40.6%) > 32.1% > 25.8%와 학업성적(39.7%) > 30.8% > 21.6%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, 정치성향은 중도성향(30.6%)보다 진보성향(54.0%)과 보수성향(42.3%)에서 높게 관찰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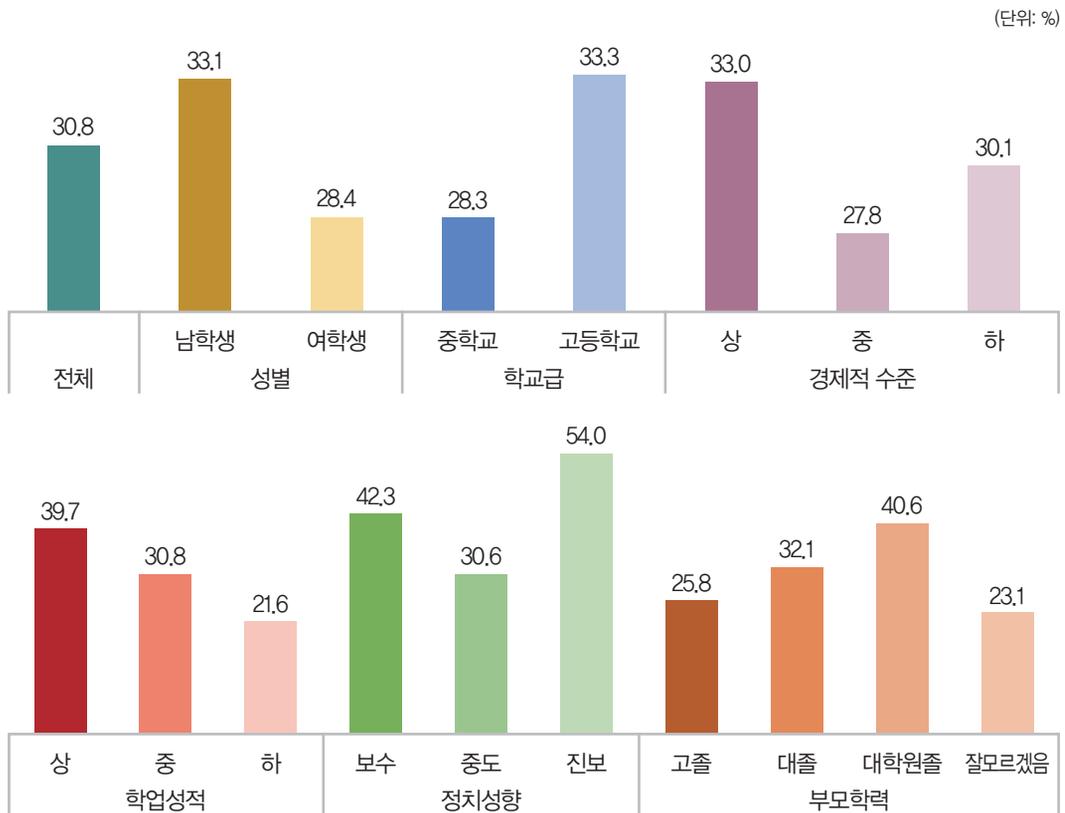


그림 1 전반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

■ 주요 정치이슈(주제)에 대한 관심 정도

- 주요 정치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주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, 여론과 미디어 동향 이슈(39.7%), 대통령과 정부 관련 이슈(36.9%), 선거 관련 이슈(34.1%), 국제정치 관련 이슈(26.7%) 및 사법부의 판결 관련 이슈(26.5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정당관련 이슈(17.3%), 국회 의정활동 관련 이슈(17.2%) 및 시민단체 활동 관련 이슈(21.9%)는 낮게 관찰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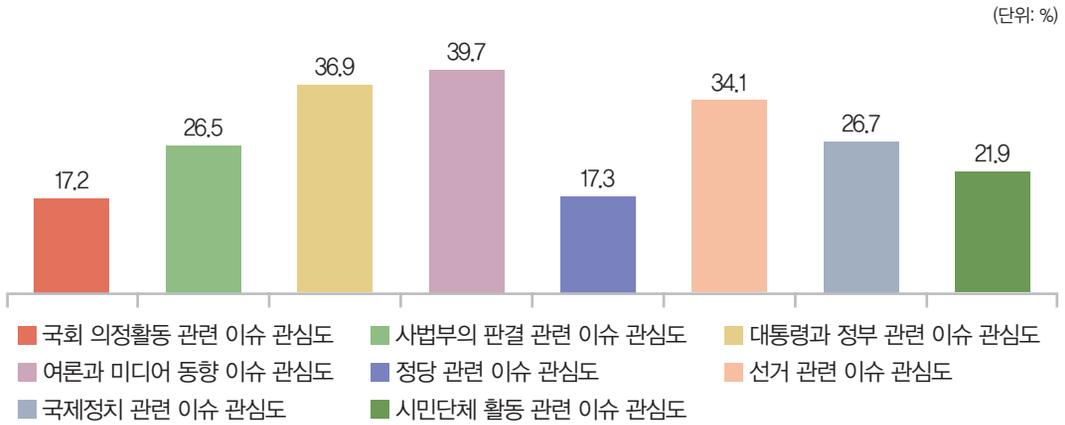


그림 2 주요 이슈(주제)에 대한 관심 정도

■ 정치 분야별 관심 정도

- 정치 분야별 관심도는 교육(42.3%), 문화예술체육(38.9%), 과학기술(35.7%)와 경제(32.4%)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사회복지(27.4%), 통일안보(27.1%), 외교(25.1%) 및 정치 행정(21.7%)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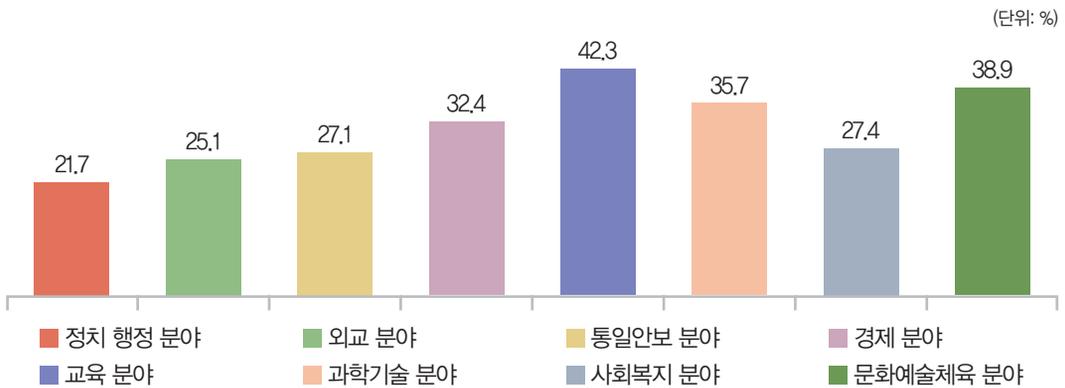


그림 3 정치 분야별 관심 정도

2 정치관련 대화대상, 견해형성 요인 및 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정도

■ 정치 관련 이슈 대화 대상

- 청소년들이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은 부모님(43.9%)과 친구(30.3%)였으며, 온라인 유저(12.2%)와 학교 선생님(8.8%)의 경우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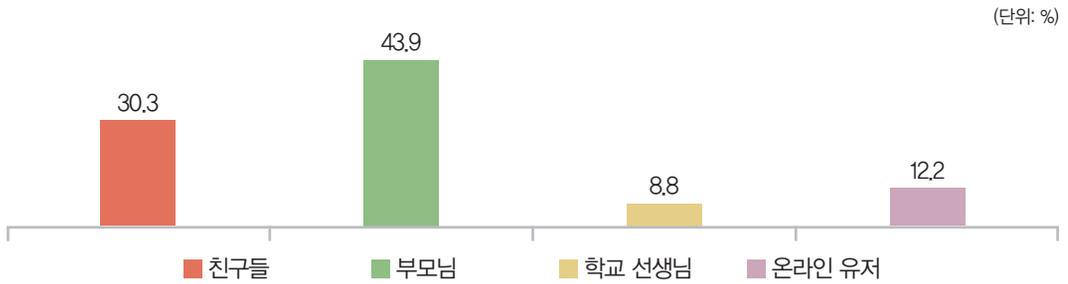


그림 4 정치 관련 이슈 대화 대상

■ 정치적 견해 형성 영향 요인

-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미치는 요인 중 언론매체(43.3%)와 부모님(37.9%)의 경우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, 그 다음 정치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(22.5%), 친구(19.3%), 관련 서적 등의 독서(18.7%) 순으로 나타남. 온라인 유저(14.7%)와 학교 선생님(13.7%)의 경우 청소년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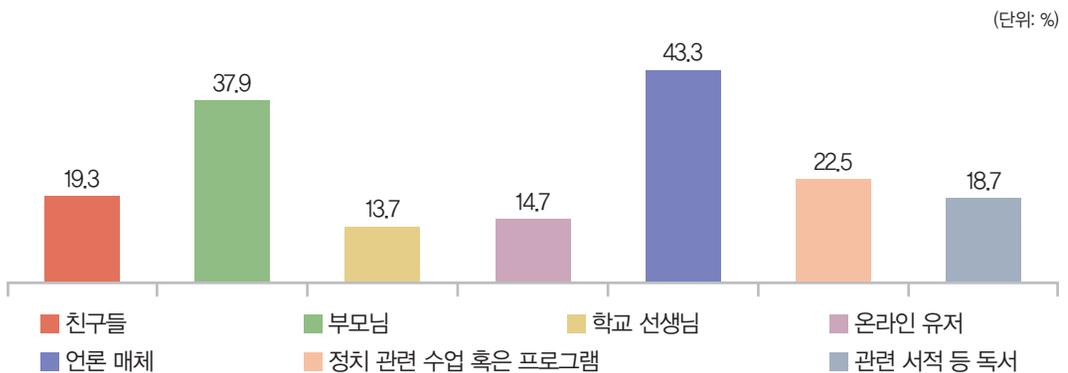


그림 5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

■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정도

-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경험 유형은 게시글 읽기(35.3%)가 가장 높았으며,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참여(22.8%)도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, 타인의 글 공유 또는 퍼나르기(13.6%)와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단 경험(7.2%)은 10% 내외의 비율로 낮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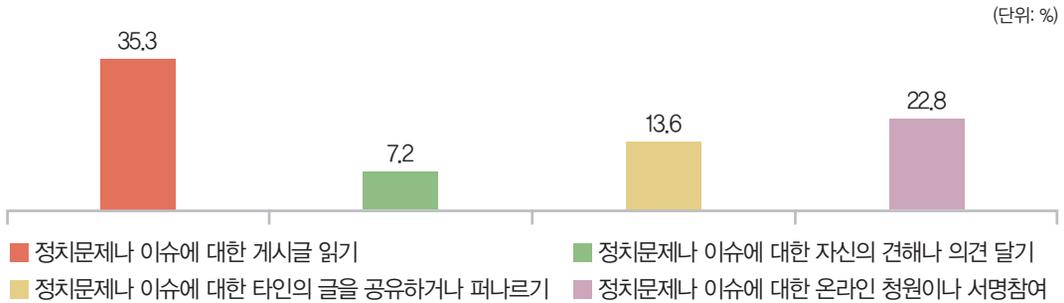


그림 6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정도

3 선거 별 투표 의향 및 공공기관 신뢰도

■ 선거 별 투표 의향

- 청소년들의 투표 의향이 가장 높은 선거는 대통령 선거(78.2%)였으며, 국회의원 선거(60.0%)와 교육감 선거(56.1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광역시/도 단체장 지방 선거(48.7%)와 시, 군, 구 기초자치단체장 지방 선거(48.1%)에 대한 투표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관찰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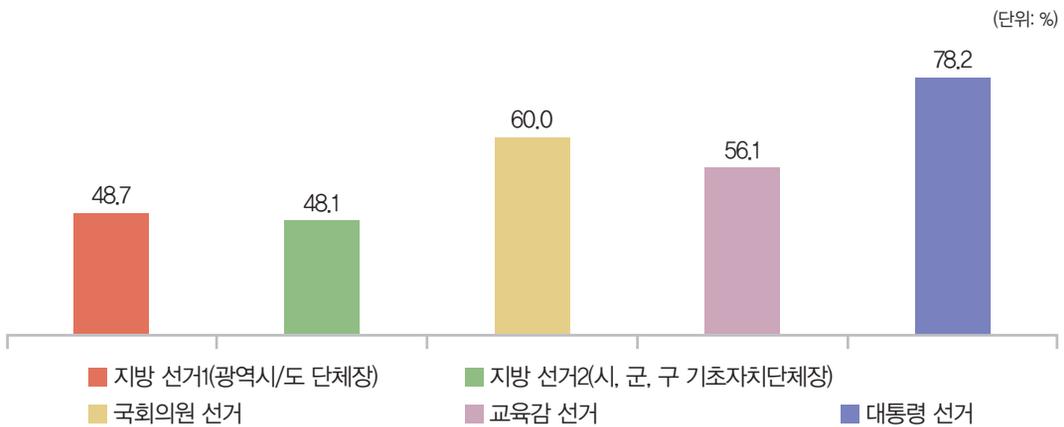


그림 7 선거 별 투표 의향

■ 공공기관 신뢰도

- 공공(민간)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도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고한 기관은 시민단체(NGO)(28.9%)였으며, 그 뒤로 중앙정부(23.0%), 국회(22.1%) 및 지방정부(20.2%) 순으로 나타났다. 언론기관(17.3%)과 정당(15.6%)은 20%에도 못 미치는 낮은 비율로 관찰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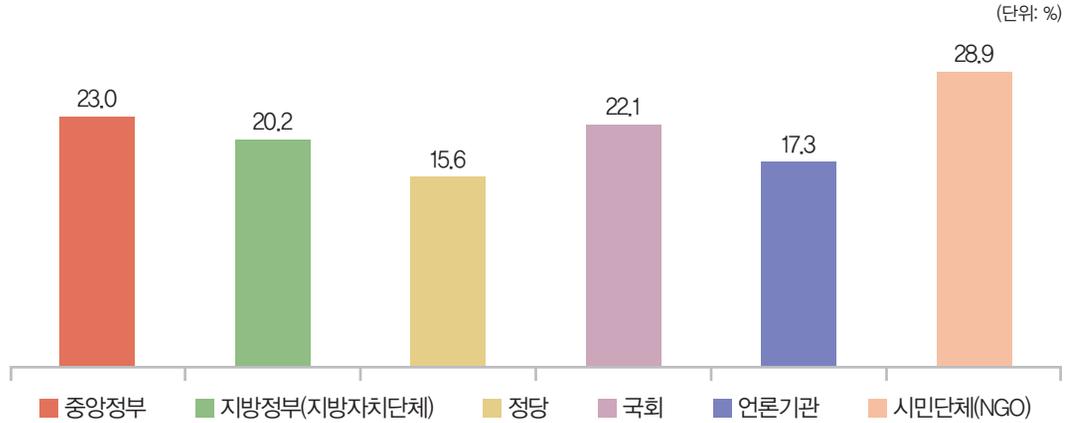


그림 8 공공(민간)기관 신뢰도

4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행태

■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비율

- 학교 안팎에서 정치 활동을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교(학급) 자치회관련 활동 경험(35.1%)이 가장 높았으며, 모의선거활동(22.1%), 어린이의회·청소년의회 활동(11.5%), 정치·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(9.5%), 청소년참여기구 활동(8.0%), 정치토론이나 정책제안대회참가 활동(5.3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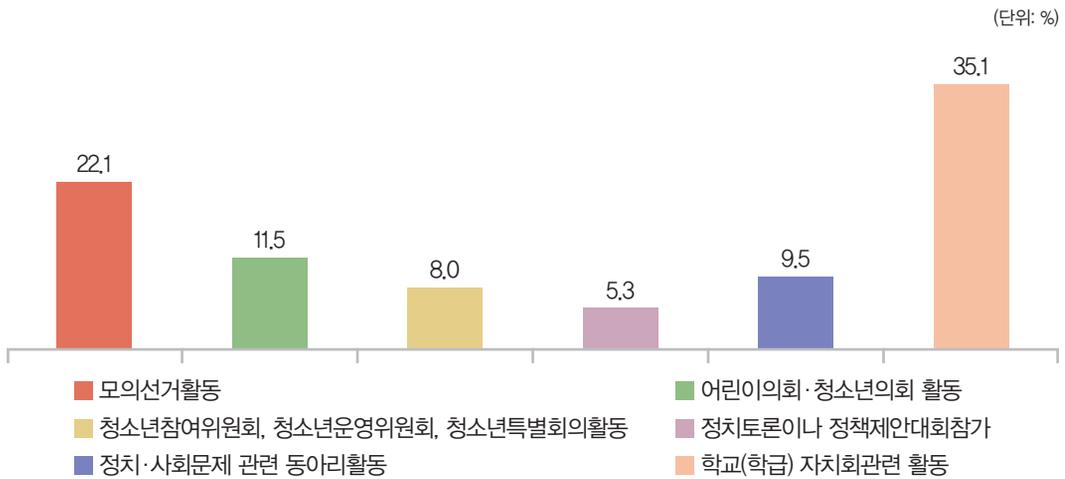


그림 9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비율

■ 정치활동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

- 정치활동경험이 정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태도 (54.6%)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사회·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(44.9%)과 사회·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(44.3%), 사회·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(40.1%)에 도움이 되었다는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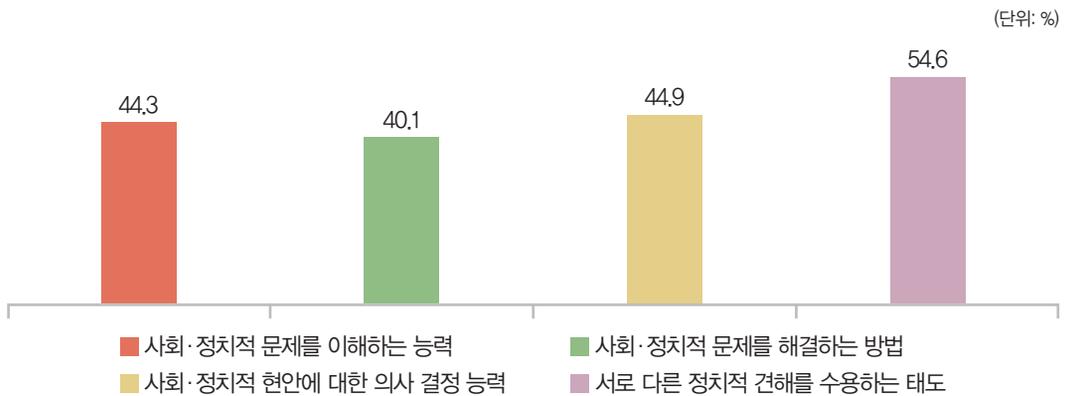


그림 10 정치활동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

■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

- 청소년들이 정치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답한 교육 내용 중 리더십 함양교육(45.9%)이 가장 높았으며,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(45.4%), 국회와 같은 정치기관 견학(40.3%), 모의선거(36.9%)와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(36.7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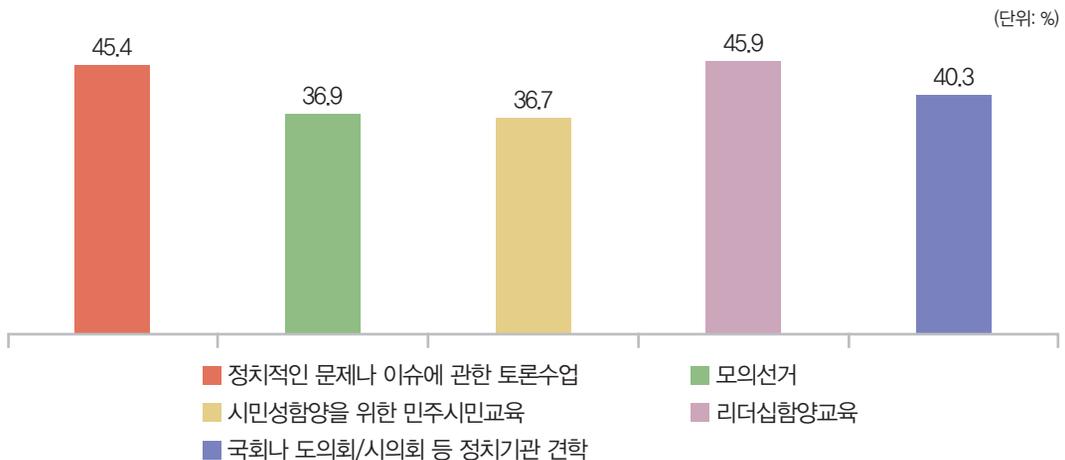


그림 11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

5 청소년 정치참여 저해 및 활성화 요인

■ 정치참여 저해 요인

- 청소년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중 입시위주의 교육제도(47.2%)가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, 학교에서 정치참여의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(36.0%)과 학생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(34.2%), 학교(23.9%)와 가정(19.3%)에서 자기 의사표현 등의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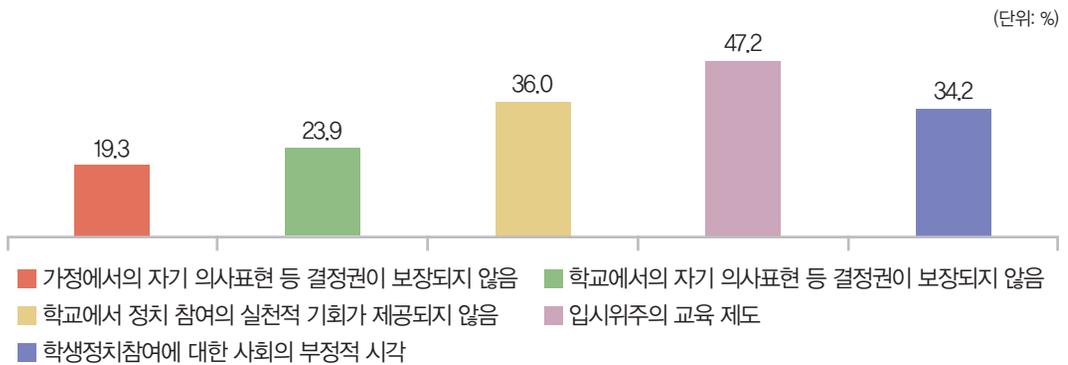


그림 12 정치참여 저해 요인

■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

-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으로 학교에서 자기 의사표현 등의 결정권 보장(57.5%), 교내 정치 및 인권 교육 확대(55.0%), 가정에서의 자기 의사표현 등의 결정권 보장(52.9%)이 과반 이상의 비율로 높게 관찰되었으며, 학교 밖 정치 활동을 허용(44.2%), 중·고등학생의 정당가입(35.1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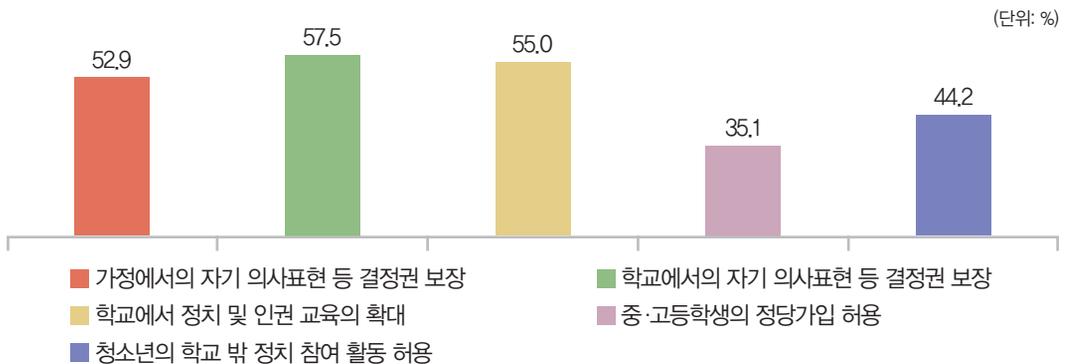


그림 13 정치참여 활성화 요인